

인천신문 2011년 2월 16일 조자영기자

과거 몇몇 은행들이 비슷한 형태의 지점을 운영했었지만 편의시설만 제공했을 뿐 계좌 개설을 위한 마케팅과 사후 관리가 안돼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이유로 박 지점장은 국민은행의 미래가 밝다고 말한다.

유스고객을 국민은행으로! 인하비룡지점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인하대 후문에 '카페 같은' 은행이 문을 열었다. KB국민은행 樂 star zone(락 스타 존) 인하비룡지점(지점장·박호용)이 바로 그 곳.

알록달록한 색깔의 테이블과 쇼파가 마치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미니 카페와 인터넷 존, 미디어 월을 꾸며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학생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포 이름도 학교의 상징물을 포함한 '비룡'으로 붙였다.



박호용(45) 지점장은 대학생들이 미래의 고객이라고 설명한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만 18~28세의 유스고객이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유스고객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찾고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사회 진출 후에도 그 계좌를 계속 쓴다는 통계가 있었죠. 이러한 근거로 국민은행이 1만명 학생 이상의 대학가 주변에 점포를 만들고 유스고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미니 점포지만 예적금, 카드개설 등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는 물론이고 세미나 공간, 미니 카페, 영화 감상,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미디어 월과 아이패드 대여, 노트북 무료 사용 등 금융산업의 빠른 변화와 신세대의 새로운 소통 수단에 맞게 은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마케팅과 지역 연계성을 위해 인하대 출신인 박호용(행정학과 85) 지점장은 물론 스텝들도 학교 출신의 20~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했다.

과거 몇몇 은행들이 비슷한 형태의 지점을 운영했었지만 편의시설만 제공했을 뿐 계좌 개설을 위한 마케팅과 사후 관리가 안돼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이유로 박 지점장은 국민은행의 미래가 밝다고 말한다.

“지금의 유스고객들은 소액을 다루지만 35세 이상이 됐을 때 적금과 대출 등으로 은행에 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락 스타 존을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렵죠. 멀리 내다본다면 대한민국에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하비룡지점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